

금요 양성 **2025년 6월 6일**

회칙에 예시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

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,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. 이 선물들은 건진때에 강화된다. 우리가 재속프란치스칸으로 서약을 할 때에, 세례때의 약속이 더욱 더 굳건해진다. 성령의 선물 (지혜, 통찰, 의견, 용기, 지식, 공경, 하느님의 경외)로 인해, 우리는 성령의 열매 (사랑, 기쁨, 평화, 인내, 호의, 선의, 성실, 오래 참음, 온유, 겸손, 절제)를 보여줄 수 있다. 회칙을 살아감으로써,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이 열매를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.

우리 회칙은

-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도록 성령이 원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.
- 하느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지를 말해준다.
- 회칙과 회헌에 대한 충실함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도와준다. (세례를 통해서 소명을 받은대로)

회칙에 담겨있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시오.

첫째로 - 회칙 4조, 14조, 19조는 우리에게 성령의 활동에 열려있으라고 요청한다. 그런 다음:

사랑: 회칙 5조, 13조, 18조

+ 서로안에서 살아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“지극히 높으신 분의 표지”를 지닌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도록 요청을 받는다.

기쁨: 회칙 13조와 19조

+ 공동체 의식이 우리를 기쁘게 하며 “어떤 처지에서든지 완전한 기쁨의 선포자...”가 되라고 상기시켜 준다.

평화: 회칙 17조와 19조

+우리는 “평화의 전달자” 이고 “평화를 건설”해야 함을 상기시켜 준다.

인내: 회칙 7조와 10조

+우리는 아버지의 손에 우리를 맡기면서 매일 회개 (메타노이아)를 추구한다.

호의(친절): 회칙 13조와 14조

+“온유하고 예의바른 정신”으로 우리는 “모든 사람을 주님의 선물이자 그리스도의 모상”으로 받아들인다.

선의 : 회칙 13조와 14조

+ “재속프란치스칸은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,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하도록 불림을 받았다...”

오래 참음: 회칙 10조와 19조

+ 우리는 “곤란과 박해 중에도,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,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”를 따른다.

온유: 회칙 9조와 11조

+ 우리는 “참된 행복의 정신”으로 산다.

믿음 (성실): 회칙 4조, 5조, 10조, 14조

+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: “그리스도는 성부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며, 우리가 성령을 통해 도달하는 진리이며, 삶의 충만함을 주려고 온 생명이다.”

겸손 회칙 11조

+ 우리는 “소유욕과 지배욕 및 그러한 모든 경향에서 마음을 깨끗이 한다.”

절제: 회칙 11조와 12조

+ 우리는 “자유롭게 하느님과 형제들을 사랑”하는데 있어서 “자유로워지기 위해 마음을 깨끗이 한다.”

토론이나 저널에 답을 쓰기 위한 질문들:

+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, 어떤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게 드러나는가? 보기를 들어 보아라.

+ 우리의 회칙이 성령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 주는가?

+ 어떤 성령의 열매를 더 배양하고 싶은가? 왜 그런가?

+ 어떤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기가 어려운가? 왜 그런지를 꼭집어어 말할 수 있는가?